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105

JCCT 2021-11-14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Influenc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윤미진*

Yun Mi Ji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192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의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3.28 ± 0.41 , 간호전문직관은 3.32 ± 0.85 였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r=.55$ ($p=.000$)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생명의료윤리의식 중 장기이식이 37%, 안락사가 16.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생명의료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among 192 nursing students in G city, from May 20 to 27, 2021.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a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WIN program. The average score for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as 3.28 ± 0.4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32 ± 0.85 .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r=.55$, $p=.000$) with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Organ transplant, Euthanasia, explained 37%, 16.5% of the varianc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outcome of this study, steps should be taken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 that emphasize a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구와 교육수준의 향상

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고유한 지식체를 확장하여 다양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에게는 전문직

*정희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2일, 수정완료일: 2021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20일

Received: September 2, 2021 / Revised: September 12,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Corresponding Author: angelymj@hanmail.net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Korea

으로 직업에 대한 뚜렷한 소명감인 전문직 정체성이 요구된다[1].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써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전문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1].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들의 간호활동과정이나 그 직업의 의식적인 견해를 간호전문직관이라고 하며 간호사들이 자신이나 동료간호사의 간호활동에 있어서 기준과 행동을 평가하는 개념적인 틀을 구성할 뿐 만 아니라[2],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간호사가 어떤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무현장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간호의 질과 간호의 미래 발전과 관련이 있다. 간호전문직으로서 개인적 만족감은 물론 대상자들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3]. 그러나 자신의 간호가치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간호사가 된 후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갈등과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 결여가 초래 될 수 있다[4].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간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되어 간호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5]. 이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요소로 생명윤리의식을 들 수 있다.

생명윤리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을 윤리적으로 검토해보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와 환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윤리적 연구들까지도 포함된다[6]. 생명윤리는 생명과학, 생명공학, 의학, 정치, 법, 철학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다. 한편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과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윤리적 물음을 야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장기이식 기술의 발전은 죽음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쟁을, 또한 유전공학 발전으로 인한 인간복제·조작가능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7].

생명윤리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적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8]. 생명윤리의

식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간호행위와 직업적인 연관이 있는 윤리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되어 현명하고 확고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요소이다[9].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므로[10] 간호의 미래 세대인 간호대학생은 학생시절부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확립하고, 장차 임상실습과 임상에서의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현장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판단, 해결함으로써 전인간호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1].

지금까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직무만족도와외의 관련성 연구[12], 전공만족도와외의 상관성 연구[13].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연구[14] 등이 있었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관한 연구[15],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자기성찰지능간의 상관성 연구[16] 등이 있었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부요인과 간호전문직 하부요인간의 관계와 설명력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간호대상자의 안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교육에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을 정립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생인 1, 2,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총 192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자가보고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 185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충분한 응답의 3명을 제외한 182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생명의료윤리의식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이영숙[17]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권선주[18]가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설문지로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의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화하고, 부정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선주[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19]이 개발한 29문항을 김영희[20]가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18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김영희[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거부, 중단 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38.7%, '여학생'은 61.3%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이 8.3%, '2학년'이 28.7%, '3학년'이 29.8%, '4학년'이 33.1%를 차지하였으며, 종교에서 '종교가 없는' 학생이 37.6%, '기독교'인 학생이 40.3%를 '불교'인 학생이 22.1%를 차지하였으며 학과만족도에서는 '만족'이 12.7%, '보통'이 48.6%, '불만족'이 38.7%를 나타내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19.9%, '보통'이 47.5%, '불만족'이 32.6%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유무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이 63.0%,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 이 37.0%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학과 입학 동기는 '적성'이 12.2%, '취업보장'이 18.2%, '부모님의 권유'가 29.3%, '성적' 이 40.3%를 차지하였다. 치매가족 유무'에서는 치매가족이 있는 학생은 8%, 치매가족이 없는 학생은 92%를 차지하였으며, '치매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1%, 경험이 없는 학생은 38.9%를 차지하였다.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8%를 차지하였고, '인간발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93.4%를 '노인병동 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16.3%, 없는 학생이 83.7%로 나타나 아래 Table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82)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70 (38.7)
	Female	111 (61.3)
Grade	1st	15 (8.3)
	2nd	52 (28.7)
	3rd	54 (29.8)
	4th	60 (33.1)
Religion	none	68 (37.6)
	Christian	73 (40.3)
	Buddhism	40 (22.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23 (12.7)
	Moderate	88 (48.6)
	DisSatisfied	70 (38.7)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Satisfied	36 (19.9)
	Moderate	86 (47.5)
	DisSatisfied	59 (32.6)
Clinical experience	Yes	114 (63.0)
	No	67 (37.0)
Motivation for admission	Considering aptitude	22 (12.2)
	Employment	33 (18.2)
	Recommendation of parents	53 (29.3)
	Correspond to score	73 (40.3)

2.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정도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 정도의 총 평균은 3.28±0.41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신생아의 권리영역에서 3.61±0.6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인공임신중절 영역에서 1.93±0.78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 총 평균은 3.32±0.85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전문적 자아개념이 4.43±0.81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간호의 독자성이 2.82±0.85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 정도
Table 2. Mean scor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N=182)

Variables	Average M±SD	Number of item	Max	Mi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3.28±0.41	49	4.23	3.28
Right to life of embryos	3.56±0.69	5	4.00	1.00
Artificial abortion	1.93±0.78	6	4.00	1.00
Artificial insemination	3.03±0.81	7	4.17	1.50
Fetus	3.49±0.56	5	4.40	2.60
Right to life of newborn	3.61±0.61	5	4.60	2.00
Euthanasia	3.18±0.69	5	4.25	2.25
Organ transplant	3.28±0.71	4	4.60	2.20
Brain death	3.39±0.67	5	4.29	2.57
Human biotechnology	3.28±0.41	7	4.23	2.69
Nursing professionalism	3.32±0.85	18	4.68	2.70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43±0.81	6	5.00	2.17
Social recognition	4.14±0.93	5	5.00	2.4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7±0.66	3	4.89	2.27
Role of nursing service	4.40±0.75	2	5.00	2.50
Originality of nursing	2.82±0.85	2	4.50	1.50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성을 제외한 학년($F=43.143, p=.000$), 종교($F=4.973, p=.008$), 학과만족도($F=40.168, p=.000$), 대학생활 만족도($F=15.050, p=.000$), 임상실습유무($t=11.478, p=.032$), 입학동기($F=14.965,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3.60±0.47), 기독교인 학생(3.37±0.42), 학과만족도에서 만족하는 학생(3.84±0.29),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학생(3.50±0.40),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3.46±0.41), 입학동기에서 부모님의 권유(3.40±0.47)와 성적(3.40±0.36)이 동기인 학생이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t=2.081, p=.039$), 학년($F=348.271, p=.000$), 종교($F=65.256, p=.000$), 학과만족도($F=11.670, p=.000$), 대학생활 만족도($F=46.695, p=.000$), 임상실습유무($t=26.502, p=.000$), 입학동기($F=16.491,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3.42±0.83), 4학년(4.03±0.13), 기독교인 학생(3.30±0.38), 학과만족도에서 만족

하는 학생(4.08±0.19),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학생(4.03±0.13),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3.92±0.25), 입학동기에서 성적(3.36±0.27), 부모님의 권유(3.30±0.38)가 동기인 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성은($r=.55,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 하위 영역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태아의 생명권과($r=.30, p=.000$), 인공인심중절($r=.17, p=.017$), 인공수정($r=.26, p=.000$), 안락사($r=.21, p=.005$), 인간생명공학($r=.28, p=.000$)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과 생명의료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r=.28, p=.000$), 사회적 인식($r=.32, p=.000$), 간호계의 역할($r=.19, p=.010$), 간호의 독자성($r=.66, p=.000$)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Table 4와 같다.

5.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변수를 독립변수로,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각각 0.801~0.973, 0.898~0.946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 1.026~1.246, 1.074~1.154의 2 이하로 낮게 나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대상자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인 장기이식이 37%, 안락사가 간호전문직관을 16.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 Table 5과 같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조사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간호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5점 만점에 3.28점을 나타내었고 이외선 등[14]의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3.51점으로 나타나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이지만, 김진영 등[16]의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은 5점 만점에 2.95점, 김태경등[12]의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3.05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났고, 이외선 등[14]의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3.73점, 김진영 등[16]의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3.9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학년, 간호윤리학 교과목 이수, 간호관리학 교과목 이수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학년이 높을수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과에 만족도 할수록, 대학생활에 만족 할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입학동기가 부모님의 권유나 성적일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외선[14]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동일하고, 김태경[14]의 학과생활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는 동일하며, 김은아[21]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종교활동을 하는 학생일수록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만족 할수록,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입학동기가 부모님의 권유나 성적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미정[21]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김태경[13]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간호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윤리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되어 현명하고 확고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요소이고[9],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실무현장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간호의 질과 간호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학생시절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 차이

Table 3. Difference i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y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M±SD	<i>χ</i> ² / <i>F</i>	<i>p</i> (Duncan)	M±SD	<i>χ</i> ² / <i>F</i>	<i>p</i> (Duncan)	
Gender	Male	3.24±0.44	1.003	.317	3.42±0.83	2.081	.039
	Female	3.30±0.38			3.16±0.87		
Grade	1st	2.86±0.29	43.143	.000 (4>3>2>1)	3.24±0.23	348.271	.000 (4>3>2>1)
	2nd	3.12±0.11			2.37±0.50		
	3rd	3.29±0.26			3.81±0.29		
	4th	3.60±0.47			4.03±0.13		
	none	3.27±0.45			3.24±0.44		
Religion	Christian	3.37±0.42	4.973	.008 (2>3)	3.30±0.38	65.256	.000 (2>1,3)
	Buddhism	3.13±0.45			2.86±0.29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84±0.29	40.168	.000 (1>3>2)	4.08±0.19	11.670	.000 (1>2,3)
	Moderate	3.13±0.28			3.22±0.90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DisSatisfied	3.28±0.42	15.050	.000 (1>2,3)	3.21±0.79	46.695	.000 (1>2,3)
	Satisfied	3.50±0.40			4.03±0.13		
	Moderate	3.19±0.41			3.06±0.90		
Clinical experience	DisSatisfied	3.14±0.23	11.478	.000	2.82±0.69	26.502	.000
	Yes	3.46±0.41			3.92±0.25		
Motivation for admission	No	2.98±0.46	14.965	.000 (3,4>1,2)	2.31±0.12	16.491	.000 (3,4>1>2)
	Considering aptitude	2.30±0.14			3.12±0.11		
	Employment	3.02±0.27			3.24±0.44		
	Recommendation of parents	3.40±0.47			3.30±0.38		
	Correspond to score	3.40±0.36			3.36±0.27		

표 4.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total)	Right to life of embryos	Artificial abortion	Artificial insemination	Prenatal diagnosis of Fetus	Right to life of newborn	Euthanasia	Organ transplant	Brain death	Human biotechnology
	<i>r</i> (<i>p</i>)									
Nursing professionalism(total)	.55(.000)	.49(.000)	.45(.000)	.49(.000)	.36(.000)	.52(.483)	.25(.000)	.61(.000)	.13(.073)	.28(.000)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28(.000)	.30(.000)	.17(.017)	.26(.000)	.36(.068)	.08(.314)	.21(.005)	.06(.449)	.10(.165)	.28(.000)
Social recognition	.32(.000)	.14(.059)	.21(.005)	.18(.014)	.26(.000)	-.10(.194)	.33(.000)	.48(.000)	.09(.237)	.15(.051)
Professionalism of nursing	.12(.099)	.25(.001)	.07(.378)	.18(.018)	-.11(.052)	.04(.611)	.14(.055)	-.05(.488)	-.26(.732)	.25(.001)
Role of nursing service	.19(.010)	.42(.000)	.33(.000)	.34(.000)	.13(.084)	.08(.307)	-.08(.241)	.16(.032)	-.06(.440)	.17(.020)
Originality of nursing	.66(.000)	.44(.000)	.42(.000)	.46(.000)	.46(.000)	.11(.142)	.37(.000)	.58(.000)	.37(.000)	.44(.000)

표 5.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for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β	t	p	F	Adj.R ²
Organ transplant	.611	10.326	.000	106.629	.370
Euthanasia	-.527	-6.057	.000	82.289	.205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06	6.362	.000	75.909	.108
Brain death	-.229	-4.625	.000	64.831	.004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55, p=.000$)를 보였으며, 이는 이외선[14], 김진영[16]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이에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 관련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지식을 함양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을 정립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의 총 평균은 3.28±0.41점, 간호전문직관 총 평균은 3.32±0.85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성을 제외한 학년, 종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임상실습유무, 입학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성, 학년, 종교, 학과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임상실습유무, 입학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성은($r=.55,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상자들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위영역인 장기이식이 37%, 안락사가 간호전문직관을 16.5%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간호전문직관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용 단계에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학교를 표의표집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과 표집방법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Y. I. Kim & E. J. Shin.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Identity. Social Workers VS Nurs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10, No1, 23-49. 2013.
- [2] M. J. Schank, D. Weis.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17. 226-233. 2001.
- [3] M. J. Park, H. N. Yoog.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Vol 25, No. 1, 38-47, 2019.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38>
- [4] Y. O. Ryu, E. Ko,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n Job satisfaction in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2, No. 1. 7-15. <https://doi.org/10.7739/jkafn.2015.22.1.7>.
- [5] Y. S. Ham, H.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3. 363-373. 2012.
- [6] B. H. Gong,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5, No. 1, 2001.
- [7] B. H. Kim, G. H. Yang, S. Y. Ann, J. Y. Kim, M. S. Seo, M. S. Kim, J. Y. Jung, J. G. Kim, M. Y. Jun, M. S. Mun, S. H. Lee, "Nursing Society, Seoul: Soomonsa; 1999.
- [8] S. Gorovitz.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Monist, Vol. 60, No. 1. 3-15. 1977. <http://dx.doi.org/10.5840/monist197760128>
- [9] M. S. Yoo, K. 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 Vol. 12, No. 2. 61-76. 2012.
- [10]J. Y. Ha, D. H. Kim, S. K. Hwang.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2. 216-224. 2009.
- [11]K. M. Park, "A Study on Attitudes of Clinical Nurse's towards Death and Dying patients", Keimyu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Vol. 7, No. 1, pp. 1-10, 2003.
- [12]H. I. Park, K. M. Park, K. H. Le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Visiting Nurses'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28 no.4 208 - 220. 2019. <http://dx.doi.org/10.5807/kjohn.2012.21.2.77>
- [13]T. K. Kim, Y. K. Park.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Vol 8, No. 3, 1-13, 2018. 10.35873/ajma hs.2018.8.3.001
- [14]O. S. Lee, E. J. Kim.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in Nursing Students. Vol 16, No. 4, 251-258, 2018. <https://doi.org/10.14400/JDC.2018.16.4.251>
- [15]Y. H. Jo.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In Convergence Era. Vol 8, No 10, 359-369,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359>
- [16]J. Y. Kim, J.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4, 435-441, 2021. <http://dx.doi.org/10.14400/JDC.2021.19.4.435>
- [17]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2, 249-270, 2004.
- [18]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3.
- [19]E. J. Yun, Y. M. Kwon, O. H. An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35, no.6, 1091-1100, 2005.
- [20]Y. 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16, no.3. 307-315. 2009.
- [21]E. A. Kim, H. Y. Park, S. E. Choi,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Med Ethics v.17, no.2. 144-158. 2014. 10.35301/ksme.2014.17.2.144
- [22]M. J. Park, H. N. Yoo,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25, no.1, 38-47. 2019.